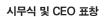


S-OIL MAGAZINE JANUARY VOL.386







임원 워크숍



S-OIL MAGAZINE | January 2014 | Vol. 386





####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내/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를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꿔나가는 업무팀을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23~27쪽)

#### **통권** 제386호

**발행일** 2014년 1월 7일

**발행처** 에쓰-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 04

## 주요소식

CEO 신년사 시무식 및 CEO 표창 임원 워크숍 해경영웅 시상 영웅소방관 시상 사랑의 김장나눔 단신



## 23

## 최강 팀

새로운 경쟁우위의 원천 '소통'입니다 **업무팀** 



## 28

#### 속닥속닥 소식통

최고 경쟁력으로 지속성장 다짐한 '윤활기유 콘퍼런스' 창의적인 업무 접근 꾀하는 '아이데이션 세션' 2014년 목표달성을 모색한 '생산지원부문 워크숍' 정유산업의 최신 정보를 공유한 '온사이트 교육' 열띤 참여와 호응으로 성료된 '에쓰–오일 바디챌린지'

## 30

##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천연기념물지킴이 봉사단 '철원 DMZ 두루미 보호활동' 햇살나눔 단신



# 36

## No.1 주유소

처음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겠습니다 **충남 공주 다모아주유소** 



# 38

## 가족 이야기

차곡차곡 행복을 쌓아가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2과 김동춘 사우 가족



# 42

## 걷고 싶은 길

걸을수록 사랑과 우정이 깊어지는 명품 오솔길 **충주 종댕이길** 



# 46

## 열린 서재

**인류의 미래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댄 브라운〈인페르노〉

# 48

## 마음 읽기

친구와 원수의 두 얼굴 '술' 〈알코올 중독〉

# **50** 독자광장

#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 더 큰 성<del>공을</del> 이루어 갑시다



에쓰-오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에쓰-오일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역동성과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청마의 기운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정제마진 하락, 국내외 경쟁사들의 시설 확장 등으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영 환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록 계획했던 경영성과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긴축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서도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정기보수(T/A)도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향상된 브랜드 가치와 함께 주도적인 시장 확대 노력을 경주해 창사 이래 최고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정유·윤활·석유화학 사업을 아우르는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회사'를 회사의 Grand Vision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9 Corporate Initiatives를 새롭게 정립하고 KPI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로 써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공통의 목표에 집중해 보다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는 조직문 화가 정착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눔'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에쓰-오일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 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회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유사 최초로 4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기업'에 편입됐으며, 미국 포천紙의 '글로벌 500대 기업' 선정, 국내 정유사 최초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업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상' 수상 등 국내외 권위있는 기관들로부터 글로벌 선도 기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에쓰-오일 임직원과 협력회사 임직원 여러 분의 열정과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에쓰-오일 가족 여러분!

2014년 세계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3 년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무한경쟁의 시작을 예고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대규모 시설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우리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동시에 Grand Vision인 '정유·윤활·석 유화학 사업을 아우르는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줄 기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T와 BT(Bio-Technology)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소재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하류부문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Center를 건립해 우리의 R&D를 한층 더 강화시킴으로써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석유화학 하류부문은 파생제품의 종류도 많고 성장 잠재력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에쓰-오일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의 Grand Vision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에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변함 없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첫째.

신규 시설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회사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로드맵 중 최우선 과업입니다. 이는회사의 사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지만 시기상 지금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사적인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에 새 역사를 열어줄 것이기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에쓰-오일 모든 구성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 둘째.

공장 운영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가 공격이라면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수비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공격과 수비가 조화롭지 않으면 어떤 경기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상치 못한 가동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공장 운영의 Reliability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은 우리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언제나 안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상의 핵심가치입니다. 임직원과 협력회사 근무자 등 모든 에쓰-오일 가족은 지난해 무재해 결의 '안전 골든룰' 선포식에서 했던 다짐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 우리 공장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eliability, 안전과 더불어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우리의 잠 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생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노력 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거둔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 실은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판매 경쟁에 대응해 고객들의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어떻게 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기존의 우리 방식이, 그리고 경쟁사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되돌아보고, 과거와 그리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마케팅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의 소명을 충실히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에쓰-오일만의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켜 왔으며,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건실한 경영활동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성'을 담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가치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2015년부터 시행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차질 없이 대응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의 Grand Vision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과 기대에 찬 201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경영환경이 불안정과 불확실로 가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했던 에쓰-오일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응집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지금 이 상황이 결국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 변화를 통찰하는 안목과 신중함으로 회사의 Grand Vision을 향한 험찬 도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쓰-오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사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에쓰-오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께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에쓰-오일이 더욱 자랑스러운 회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에쓰-오일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에쓰-오일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이사 CEO 나세르 알 마하셔

# 새로운 도약의 원년

# 희망을 약속하다

2014년 시무식 및 CEO 표창



우리회사가 신년을 맞아 시무식을 개최했 다. 본사와 온산공장 및 전 지역본부·판매 지사에서 동시에 열린 올해 시무식에는 신 입사원 80명이 함께해 활기찬 공연으로 새 회망에 불을 지폈다. 전 임직원은 회사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푸른 말(靑馬)의 해' 2014년을 맞아 도약의 기운 을 가득 품은 시무식이 1월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나세르 알 마하셔 CEO를 비롯한 전 임 직원은 본사 실황이 온산공장과 전 지역본부 · 판 매지사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새해 첫 근무를 기념하며. 회사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해 한 데 힘을 모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이날 식장에 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80명이 자리를 함께해 선배 임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신입사원들 은 집합교육 중 준비한 시무식 축하공연으로 기 운찬 활력을 불어넣으며 임직원의 뜨거운 박수갈 채를 받았다.

마하셔 CEO는 "역동성과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 는 청마의 기운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 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난 한 해 우리는 혹독한 경영환경을 경험해야 했다"고 돌아보고, 긴축경 영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위 기관리 능력과 사상 최대 정기보수의 성공적 완 수, 브랜드가치 향상과 함께 수출확대 등 임직원 이 힘 모아 일궈낸 성과들을 짚어나갔다. 또한 우 리의 그랜드 비전(Grand Vision)으로서 '정유· 윤활 · 석유화학 사업을 아우르는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를 제시하고, 9가지 전사 전략과제(9 Corporate Initiatives) 정립과 KPI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보다 높은 성과 창출을 목 표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나가고 있음을 환기 했다. 이에 더해 2014년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 심 과제로 △회사 역사상 최대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공장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 수호 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고객 니즈 충족과 시장 개 척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윤리적이고 건실한 경영활동과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공유하며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성과에 기반한 올해 CEO 표창은 Leader-ship·Performance·New Employee 부문과 더불어 Special Award 부문의 3개 프로젝트 수훈자를 포함, 총 44명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전사 제안제도를 통해 업무효율과 수익 개선에 기여한 우수제안자(5명)와 최우수제안부서(2개 부서), 최우수 심사부서(6개 부서)도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시무식에 앞서 새해 첫날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온산공장 실험연구소 뒤편 언덕에서 임직원과 해맞이를 함께했다. 임직원 및 기족 1천800여 명은 해맞이에 이어 떡국과 다과를 나누며 회사의 그랜드비전을 향해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 \$















C	EC	) ±	t징

**Leadership Award** 

김영수 동력1부, 송호성 수송저유팀, 김준복 법인영업팀, 석한호 정유제품팀, 이춘배 업무팀, 이동은 리스크관리팀, 정상훈 경영기획팀, 하대일 HR기획팀

**Performance Award** 

김건희 건설팀, 김규은 장치부 예방정비과, 김도형 제품출하부 해상출하과, 김 영우 대외업무팀, 김훈장 환경관리팀, 이명균 공무부 설계2과, 이병기 분해2부 유황2과, 이용춘 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 이욱용 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전면호 정유생산부 정유1과, 강형석 용선팀, 민제홍 석유화학제품팀, 박명제 영업전략팀, 백호 상해지사, 이성택 진주지사, 황태건 직영주유소관리팀, 곽영훈 생산구매지원팀, 송경란 광고팀, 이용래 지금운영팀, 정낙림 시설투자기획팀, 홍대성 HR기획팀, 정득균 준법지원팀

**New Employee Award** 

전세영 품질보증팀, 김태정 윤활마케팅전략팀, 김병주 노사협력팀

**Special Award** 

김정태 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양진우 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김봉기 Aromatics생산2부, 송성환 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 진용인 검사 부 검사2과, 이층희 검사부 검사1과, 이재욱 계전부 계기1과, 이준희 계전부 예방 정비2과, 이환일 RUC추진2팀, 서봉교 RUC추진1팀, 김기흥 세무팀

#### 제안제도 시상

우수제안자

· 최우수상 이주협 장치부 기계1과

· 우수상 정장식 RUC기술팀

· 장려상 박정규 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반기석 충청지역본부

· 노력상 이원호 계전부 계기1과

최우수 제안부서

계전부, 계기1과, 윤활마케팅전략팀

최우수 심사부서

계전부, 정유공정부, 안전보건부, IT기획팀, 총무팀, 생산IT기획팀

#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 향해

# 힘찬 전진 다짐하다

임원 워크숍

2013년 겨울 임원 워크숍이 지난 12월 13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됐다.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임원 역량 결집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은 임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12월 13일 아침, 나세르 알 마하셔 CEO의 기조연 설로 워크숍 빗장이 열렸다. 마하셔 CEO는 인사 말을 통해 "'눈의 도시'인 일본 삿포로에서 모든 임 원과 함께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듯 회사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어 설레고 흥분된다"고 소감 을 전했다. 특히 회사의 미래에 있어서 신규 프로 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BCC 프로젝트와 같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천리 길도 한 걸 음부터'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미래를 향한 첫 걸 음으로서 이번 임원 워크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략기획본부를 서두로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략기획본부는 신규 프로젝트 의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설비와 역량, 현재 와 미래의 시장현황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한 결과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회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임원 워크숍이 12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됐다. 나세르 알 마하셔 CEO를 비롯한 임원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글안상열(인력개발팀)사진전부순





고, 프로젝트 완료 뒤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회사는 상업가동 이전에 기획 · 설계 · 건설 단계에서부터 일부 인원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견고한 교육체계를 도입해 신규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뒤이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적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제언을 듣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의가 진행됐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요인들로 안전, 설비의 성능, 설비의 질, 일정 내 완공, 예산범위 내 완공 등이 제시됐다. 여러 사례를 통해임원들은 프로젝트 성공요인의 실현방안을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오전 일정은 신규 프로젝트의 세부 기술적 요소들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비롯해 업무 조직과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와 그룹별 토론 · 발표가 진행됐다.

마하셔 CEO는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회

사가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위기의식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기며 BCC 프로젝 트를 성공으로 이끈 선배들을 본받아 모든 임원이 회사의 미래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 험난한 바다 위 영웅

#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해경영웅 시상

12월 23일 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2013 해양경찰영웅 시상'에서 첫 해경영웅이 탄생했다. 우리회사는 지난해 4월에 영웅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과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은 뒤 첫 번째 해양경찰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 해경영웅과 우수 해양경찰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나세르 알 마하셔 CEO와 이창재 부사장 등 우리 임직원을 비롯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차흥봉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 서 김동진 경정은(동해서 5001함)과 남해청 부산 서 112구조대 등 기관 8곳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 았다. 김동진 경정은 함장으로서 침몰하는 선박에 타고 있던 중국인 승조원 17명을 모두 구조해 인 명을 지키는 한편, 독도해역에 출현한 일본 순시 선을 감시하고 61척의 차단경비를 완수하는 등 해 양명토 수호에 기여했다.

마하셔 CEO는 격려사를 통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양경찰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고 "선박조난과 침몰 구조, 해상오염방제, 불법조업 어선 단속, 응급환자 이송 등 일선 현장 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시는 해 양경찰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안심하고 편안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우리회사는 해경영웅 선정·시상을 비롯해 공상 해경 격려금 지원, 해경 자녀 해양 유적지 탐방, 순직해경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한신하는 해양경찰을 후원하고 있다. 💃

바다 위에서 각종 사고예방 · 수습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활약해 온 해양경찰을 격 려하는 해경영웅 시상식이 열렸다. 마하셔 CEO는 해양경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 리며 무한한 용기를 응원했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 용기 있는 헌신

# 소방영웅을 응원합니다

올해의 영웅소방관 시상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키는 데 헌신한 소방관을 격려하는 '영웅 소방관' 시상식이 개최됐다. 우리회사는 험 난한 악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을 위해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한 '2013 영웅소방관' 시상이 12월 24일 서대문소방서(서울 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개최됐다. 나세르 알 마 하셔 CEO는 올해 최고의 영웅소방관에 선정된 문 권주 지방소방장(광주 광산소방서)에게 표창장과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한 데 이어 유근성 지방소방 장(서울 광진소방서) 등 영웅소방관 6명에게 각각 표창장과 상금 1천만 원을 시상했다.

마하셔 CEO는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현장에 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과 그 가족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에쓰-오일은 소방관 여러분 곁에서 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최고 영웅소방관의 영예를 안은 문권주 소방 장은 지난 6월 광주 광산구 신축건물 붕괴사고 현 장에서 9시간 사투 끝에 매몰자 6명을 극적으로 구조했으며, 이를 비롯해 16년 동안 5천800여 건 의 인명구조 활동과 화재진압으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웅소방관에 선정됐다.

우리회사는 2006년부터 8년째 지속적으로 영웅 소방관 시상식을 열고,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안 위에 이랑곳없이 헌신하는 모범 소방관들을 격려 하고 있다. \*\$ 공장 화재현장에서 철골구조물 붕괴를 방지해 피해를 막았으며, 신축건물 공사장 붕괴현장에 서 매몰자 6명을 전원 구조했다.

## 영웅소방관

#### 유근성 지방소방장(서울 광진 소방서)

원룸 화재현장에서 시민 8명을 구조했으며, 대학 실험연구실 폭발사고 현장에서 중상자 6명을 구조하고 중화재 살포로 2차 피해를 막았다.

#### 류인걸 지방소방장(경기 소방재난본부)

아파트 지하 화재현장에서 시민 2명을 구조했고, 공장 암모니아 누출사고 현장에서 가스누출을 차단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 양석무 지방소방장(경남 소방본부)

산사태 현장에서 중상자를 헬기로 신속히 이송 해 2차적 신체손상을 막았고, 밀양 송전탑 현장 에서 응급환자 2명을 헬기로 신속히 이송했다.

#### 박화진 소방위(경북 포항남부소방서)

산불 현장에 최초로 도착해 피해 확산을 막았으며, 공장 화재 현장에서 2차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 김진우 지방소방교(울산 소방본부)

등산 중 오랫동안 조난에 처한 시민을 위치 추적으로 찾아 구조했고, 산에서 추락한 골절환자를 신속히 응급처치 후 소방헬기로 구조했다.

#### 길은경 지방소방장(대전 북부소방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자 2명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으며, 공사장에서 추락한 환자를 응급처지 후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유지시켰다.

# 사랑 가득한 김치로

# 행복 나눕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울산지역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우리회사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 었다. 지난 12월 6일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한 김장나눔 봉사 현장에서 나세르 알 마하 셔 CEO를 비롯한 임직원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자원봉사자 등과 힘을 모아 배추 5천 포기· 무 1천 개 분량의 김치를 담갔다. 햇살나눔봉사단 을 포함해 총 270여 명이 동참한 김장나눔 현장에 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서동욱 울산시의회 의장. 김 복만 울산교육감 등 지역인사들도 직접 참여해 김 장을 담그는 가운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마하셔 CEO는 "한국의 오랜 전통음식인 김치를 평소 즐겨먹는데 이렇듯 직접 김치를 담가 이웃들 에게 나눠줄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다양한 햇살나눔으로 함께 정을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만 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회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지난 2007년 부터 해마다 지속해 왔으며, 이와 함께 도움의 손

나세르 알 마하셔 CEO와 임직원들이 울산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 친 데 이어, 충청지역본부와 공무부문도 각 각 김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글** 이수연(대외업무팀)·신기섭(충청지역본부)· 김종명(자재관리과)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길이 더욱 절실해지는 겨울철에 연탄배달, 난방유지원 등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오고 있다. 한편 충청지역본부와 대전·공주·아산·청주지사는 지난해 12월 7일에 대전동부소방서(대전시 대덕구 법동)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충청지역본부가 지난 2007년부터 7년째 동참해온 나눔행사로, 이번 봉사에서는 우리 임직원 80여 명이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배추 약 1천2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290상자로 포장

한이들 김치는 지역 복지기관을 비롯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정, 장애인 가구 등에 전달됐다. 공무부문도 이웃들의 겨울철 든든한 먹거리가 되는 김장나눔에 나섰다. 공무부문 봉사단은 울산지역 사회복지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에서 김장 담그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우리 봉사단이 아동센터어린이들과 함께 담근 김장김치는 인근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가정에 고루 배달됐다. 🏂



# S-OIL NEWS



## 운영총괄 임원 연말 현장 격려순회

박봉수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운영총괄 임원진이 12월 30일에 현장 순회에 나섰다. 이번 순회는 세밑에도 이랑곳 않고 공장의 안정가동 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수석부사장과 임원들은 전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송년 인사 를 건네고, 저마다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우리회사가 1월 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자원봉사대 상' 시상식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6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와 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 회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회 각계각층의 유공자들을 발굴해 표청해왔 다. 우리회사는 온산공장을 통해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전개하면서 나눔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매년 공모전으로 엄선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1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에서 열린 '2013 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우리회사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 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 가 2008년부터 매년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행정기관·지 방단체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우리회사를 비롯해 17 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우리회사는 △임직원 건강관리 △ 출산·육아 지원 △가족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 보너스카드 포인트 '사랑의 열매'에 기부

우리회사가 고객들과 함께 모은 보너스카드 포인트를 지난 12월 5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올해 기부금은 보너스카드 회원 5천487명 이 기부한 1천577만원에 회사가 매칭그랜트 형태로 동일한 금액을 더해 마련됐다. 이 성금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곳의 자립생활관 에서 생활하다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의 홀 로서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우리회사는 2005년부터 고객들이 주유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되는 보너스카드 포인트에 대해 기부 캠 페인을 펼쳐왔으며, 이렇게 모은 성금에 회사 출연금을 더해 9년 동 안 2억3천600원을 기부했다.



## 윤활유 수출 대리점 계약

우리회사가 윤활유 완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활 유 수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16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윤활유 수출 대리점 계약 체결식에서 우리회사는 총 4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에 우리 윤활유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대리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중국ㆍ러시아ㆍ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ㆍ미얀마 등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 증대 기반을 마련해 윤활유 브랜드의 해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저유소 무재해 목표 14배수 달성

인천저유소가 무재해 목표 14배수를 달성함에 따라 12월 4일에 안 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패와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인천저유소는 안 전보건공단 인증 기준에 기초해 1998년 7월 17일부터 무재해 운동 에 돌입했다. 이후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 인 끝에 지난해 8월 26일부로 무재해 목표 14배수를 돌파했다. 이로 써 인천저유소는 산업재해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무재해 목 표를 새롭게 돌파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추진기법을 안전보건 공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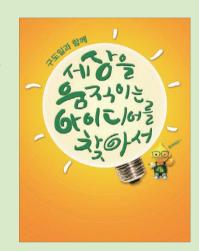
##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 마케팅 공모전 '2014 브랜드 어워드'

대학생 대상의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인 '브랜드 어워즈'가 오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디어를 찾 아서'라는 콘셉트의 이번 공모전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보너스카드 △모바일 앱 △환경 캠페인 등 4개 부문으 로 나눠 참시한 아이디어를 받는다.

응모 자격은 국내 거주 대학생과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나 4인 이내 팀으 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에 최종 수상 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 1팀에게 400만원, 최우수상 3팀에게 각 200만원, 우수상 5팀에 각 100만원, 특별상 150만원 등 총 1천 7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입사 지원을 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 s-oilbonus.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www.facebook.com/brandawards)에서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하는 공모전이벤트도 진행한다.



#### 임원동정

- 12.11 이영백 상무(정비부문 담당) 빙부상
- 12.1 박성우 전무(법무총괄)→전무(법무/컴 플라이언스본부장) 손봉기 부장(법무 팀리더)→부장(법무부문 담당(대행))
- 1.1 임희승 상무(수급부문 담당)─상무 수송 부문 담당 안종필 상무보(수급계획팀리 더)→상무보(수급부문 담당 겸수급계획 팀리더)

#### 인사동정

#### 팀리더/부장(대행) 임명

12.1 김일권(책임법무원.법무팀 법률자문파 트리더)→법무팀리더(대행) 금동호(책 임법무원.법무팀 송무파트리더)→준법 지원팀리더(대행) 김대문(2급:업무부 경 리괴장)→RUC관리팀리더(대행) 한성(2 급.분해2부분해2과장)→분해3부장(대행) 박병인(2급.수급계획팀 Feedback구매 파트리더)→원유팀리더(대행) 정영섭(2 급.해외마케팅전략팀)→해외운영팀리더 (대행) 정의산(2급.수송저유팀)→수송팀 리더(대행)

#### 파트리더 임명

- 12.18 손길상(2급.기획분석팀)→기획분석팀 공장예산관리파트리더
- 1.1 이재규(2급.인사팀))→노사협력팀 C&B 최적화파트리더

#### 보직변경

12.1 이정익(1급.정유공정부장)→RUC추진 1팀리더 이환일(1급.Residue Upgrading Project TF팀리더)→RUC추진2팀 리더 김태기(1급.계전부장)→RUC기술 팀리더 앙영진(1급.기획분석팀리더)→정 유공정부장 홍승표(1급.분해3부장)→분 해공정부장 장순철(1급.분해공정부장 검

에너지기술/관리팀리더)—에너지기술/ 관리팀리더 신종철(1급.기획분석팀)— 기획분석팀리더 김형철(전문부장.계전 부 예방정비2과장)— 계전부장 이치성 (전문부장.검사부 검사2과장)—검사부장 권일(2급.검사부장(대행))—공무부장(대 행) 김대환(3급.전주지사 판매담당)—군 산지사 판매담당 김봉기(4급.Aromatics 생산2부 PX생산2과)— Aromatics 생산 2부 Safety Engineer

1.1 장영덕(1급.석유화학운영팀리더)→윤 활기유국내영업팀리더 김태원(1급.윤 활기유국내영업팀리더)→윤활운영팀 리더 이한준(1급.윤활운영팀리더)→석 유화학운영팀리더 심우길(1급.해외운 영팀리더)→정유Heavy제품팀리더 송 호성(1급.수송저유팀리더)→저유관리 팀리더 석한호(2급.정유제품팀리더(대 행))→정유Light제품팀리더(대행) 설정 희(2급 정유제품팀) 곽동근(2급 직영주 유소관리팀-한강신도시주유소 파견)→ 직영주유소관리팀(한강신도시주유소 및 스카이주유소 파견) 박은영(2급,IR 팀)→윤활기유해외마케팅팀 홍영목 하 갑수(2급.수송저유팀) 노상래(5급.수송 저유팀) 주문희(OS2급.수송저유팀)→ 수송팀 박석현 이재춘(2급.수송저유 팀) 김도형 정명하(3급.수송저유팀) 윤 정미 이완호 이동인(4급.수송저유팀)→ 저유관리팀 정국진(3급.노사협력팀)→ 인사팀 김승후(3급.수급계획팀) 김유 라(4급.수급계획팀) 박상찬 류현석(5 급.수급계획팀) 최미옥(OS2급.수급계 획팀)→원유팀 서정민 이양원(3급.정 유제품팀) 김동인(4급.정유제품팀) 강 현웅(5급.정유제품팀)→정유Light제품 팀 박형근 최기진(4급.정유제품팀) 정 재엽(5급.정유제품팀)→정유Heavy제 품팀 임형준(4급,윤활기유해외마케팅 팀)→동경지사 박민규 이충훈(3급.수송 저유팀-배치센터) 박철오 황두환 김영 길 고광호 정광환 오현우 한기종 소정 훈 김종훈 서석규 유재춘 오세진 윤병 재 최근복 한용수(4급.수송저유팀-배 차센터)→수송팀(배차센터) 권성훈(4 급.동력1부 동력2과)→동력1부 동력2 과 교대계장 정두선(4급.동력1부 동력 2과 교대계장)→동력1부 동력2과 윤 원경(5급.인사팀)→HR기획팀 김재영(5 급.HR기획팀)→인사팀 백승훈(4급.정 유생산부 정유1과) 정승문(5급.정유생 산부 정유1과) 배성민(5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정유생산부 정유공정과 (정유/윤활유공장 파견) 박종호(5급.분 해1부 분해1과)→분해공정부 HYC/ LUBE공정과 김경진(5급.분해2부 분해 2과) 송진호(5급.분해공정부 RFCC공 정과)→분해공정부 RFCC공정과(분해

생산공장 파견) 이재찬(5급.Aromatics 생산1부 Aromatics생산1과) 최영철(5 급.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정 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Aromatics 생산공장 파견) 최률호(5급.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이현규(5급.제품출하부 해상출하과) 이광동(5급.동력2부 동력 3과)→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송 유/동력공장 파견) 최원철(5급.정유생 산부 정유2과) 김주헌(5급.분해3부 정 유3과)→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김지 홍(4급.Aromatics생산2부 Aromatics 생산2과) 민홍식(5급.동력2부 동력3과) 이정민(Aromatics생산2부 Aromatics 동력과)→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 과 이상두(5급.동력1부 동력1과) 이동 화(동력1부 동력1과)→정유공정부 송 유/동력공정과 박갑동(5급.분해1부 유 황1과) 박승희(5급.분해2부 수소2과) 최우혁(5급.분해3부 탈황2과)→분해공 정부 RHDS공정과 김용기(4급.분해1부 분해1과) 류희조(5급.윤활생산부 윤활유 2과) 최연대(5급.분해2부 유황2과)→분 해공정부 HYC/LUBE공정과 황경일(4 급.분해1부 탈황1과) 윤효성(4급.분해2 부분해2과) 김민희(4급,정유공정부 송유/ 동력공정과) - 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12.10 정득균 김혜진(전임법무원.법무팀)→준 법지원팀

12.12 서봉교(2급,Residue Upgrading Project TFT) 조영빈(3급,동력1부 동력1 과장) 김정훈(4급,윤활생산부 윤활유1 과) RUC추진1팀 홍승완(4급,Residue Upgrading Project TFT) 이성수(4급,분 해공정부 RHDS공정과) 우현욱(4급,분 해3부 수소3과) 신봉수(4급,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이인석(4급,Aromatics 생산1부 PX생산1과)→RUC추진2팀 이

혁진(4급:검사부 검사2과) 오권영(4급:Residue Upgrading Project TFT) 임 정욱(4급:계전부 예방정비2과) 정장식(4급:정유공 정부 송유/동력공정과) 김태오(5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 -RUC기술팀

원종석(2급.RUC관리팀)→RUC추진2 12.18 팀 박석진(2급.분해공정부 HYC/LUBE 공정과장)→분해1부 분해1과장 최창 훈(2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장)→ 분해1부 수소1과장 이준한(2급.정유공 정부 송유/동력공정과장)→분해1부 유 황1과장 김호원(2급.분해1부 수소1과 장 겸 유황1과장)→분해2부 분해2과 장 정용훈(2급.동력1부 동력2과장)→ 동력1부 동력1과장 남호철(2급.장치 부 기계2과장)→장치부 기계1과장 김 승학(2급.장치부 기계1과장)→장치 부 기계2과장 이혁창(2급.계전부 계기 2과장)→계전부 계기1과장 서철진(2 급.계전부 계기1과장)→계전부 계기2 과장 이영기(2급.분해1부 분해1과장)→ 분해공정부 RHDS공정과장 박홍철(2 급.Residue Upgrading Project TFT)→ 생산조정팀 김영배(2급.기획분석팀 공 장예산관리파트리더)→업무부 경리과 장 최유섭(3급.교대과장)→동력1부 동 력2과장 나유웅(3급.기술교육팀)→인 사후생부 인사과 진용인(3급.검사부 검 사2과)→검사부 검사2과장 이성수(4 급.RUC추진2팀)→RUC추진1팀 황진 욱(4급.계전부 예방정비2과)→계전부 예방정비2과장(대행) 허민구(4급.분해 공정부 HYC/LUBE공정과)→분해공정 부 HYC/LUBE공정과장(대행) 박주용(4 급.연차보수팀)→장치부 장치과 박지훈 (4급.정비계획팀)→공무부 설계2과 박 정훈(4급,안전보건부 안전과)→안전보 건부 안전기획과 김수호(5급.공무부 설

#### 해외유학 파견 및 복귀

**12.26** 장예리(4급.감사팀)→인력개발팀 부(휴직)

12.30 문현용(4급.인력개발팀 부)→정유공정 부 송유/동력공정과장(대행)

#### 2014 대졸 신입사원 입사

12.23 김경호 김관희 김승수 김영진 김원경 김지원 로철권 민춘기 박세훈 박창은 박해진 배지현 백재우 서동하 안국문 유진욱 윤제필 이석범 이성현 이세훈 이용석 이용우 이윤백 이진주 이찬희 이태훈 전송욱 조준형 지용희 진명진 최명원 최수영 한승헌 허윤희 강호범 남경목 박준호 백동민 이민구 추영준 홍보인 김건희 김동엽 김석일 박동민 석윤수 이희성 김건우 김경민 김동휘 김민철 김성준 김신형 김재현 김진형 김태영 김태현 김현호 김혜수 남상덕 박건욱 박상우 박정우 배진만 성정헌 양동조 우형진 이민제 이민형 이정현 이지훈 임성훈 장성제 정성훈 정영락 주혜연 최기원 최상원 한이름 홍윤기 (5급.인력개발팀 부)

#### 입사

12.2 권용남(3급.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

**12.16** 황은철(4급.IT기획팀)

#### 채용

**12.16** 박선영(OS4급.총무팀)

12.24 장혜경(5급.기획분석팀)

#### 퇴직

**12.31** 한창희(3급.군산지사) 함소리(운영지원팀 부)

#### 결혼

12.15 김종경(분해1과)

12.21 진재환(설계3과) 김경만(유황1과) 임정욱(예방정비2과)

12.28 이원용(촉매연구팀)

신승환(Aromatics생산2과)

1.11 김민호(예방정비1과) 박세홍(정유1과)

1.12 강동근(수소3과) 김윤호(환경운영과)

**1.18** 고준(정유2과)

1.19 김효민(장치과)

#### 부음

12.2 최무기(총무과) 빙모

최영수(기술교육팀) 부친

**12.4** 강성훈(기계1과) 빙부

**12.6** 조연국(분해2과) 모친

12.8 서희우(해상출하과) 빙모 박성근(분해1과) 빙부 오영주(석유화학제품팀) 조모

12.9 박종성(유황2과) 모친 박재락(전기과) 부친 백현욱(Aromatics생산1과) 조모

12.12 이순미(네트워크강화팀) 시부

12.14 김광호(안전과) 빙부

12.16 노일환(제품운영2과) 부친

12.21 손동진(연차보수팀) 빙부

12.25 방경운(환경관리팀) 빙부

12.28 최대만(장치과) 부친

12.30 여윤찬(기계2과) 외조모상

#### **9 Corporate Initiatives**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y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내/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뜨거운 열정과 굳은 포부를 품고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내/외부 이해관 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업무팀'을 소개합니다

# 새로운 경쟁우위의 원천 **소통**Communication입니다

업무팀



다수 이해관계자가 대립과 협력 전략을 복잡하게 구사하는 기업 생태계에서 소통(Communication) 능력은 매우 중요한 무기이다. 완벽한 정보력과 원만한 대인능력, 철저한 책임감으로 무장된 최상의 맨파워를 갖추고 정부정책과 관련한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팀을 찾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알아본다.





날이 갈수록 기업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대내 외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된 정유업계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팀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움직임은 우리회사의 전략과 사업 추진 방향이 바뀔 수 있 는 중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호적이 고 원활한 관계형성을 통해 정책동향을 적기에 파익하고 정부정책에 회사입장을 최대한 반영하 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배 팀리더는 "업무팀은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분석력, 내가 바로 회사를 대변한다는 책임의식,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말한다. 업무 특성으로 볼 때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테랑의 리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 여기에 젊은 인재들의 열정과 패기가 더해져 최상의 시너지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한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전문의식과 도전정신을 가

지고 회사발전에 일익을 다하자는 각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열정과 전문성 갖춘 여섯 명의 전사(戰士)

업무팀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격이 짙다. 정부가 새로운 법규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관련 팀과 협의해 입장을 전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즉 우리회사의 9가지 전사전략과제(9Corporate Initiatives) 중 내/외부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 강화(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부서가 업무팀이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법규·정책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관, 산업계 전반, 소비자 그리고 우리회사를 비롯한 정유업계 등이 치열하게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조합되는 결과물이다. 여기에 유통정책, 공정거래정책, 유가·세금정책, 품질정책, 신재생에너지정책 등다양한 분야들이 연계되고 있기에 업무팀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팀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9



이 팀리더는 "사업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일들이 첨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한시도 여유를부릴 수 없다"며, 새로운 법규의 조항 하나, 소수점수치 하나에 울고 웃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위기도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사람들이 바로 업무팀이다.

"우리회사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올해 신규 프로 젝트를 실현시키는 외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써 우리가 도맡을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 예 측됩니다. 조직 정비를 통해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젊은 인재를 적극 받아들인 것은 이러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위기도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바로 업무팀이다. 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최상의 포 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초석을 다진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업무팀 이 생각하는, 우리회사를 보는 외부의 인식은 '뛰어난 제품력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집약된다. 비교적 후발로 사업을 시작해 앞선 대규모투자로 대형 고도화 설비를 갖추었으며, 참신한기업 이미지와 든든한 기업구조, 모범적인 고용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룬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경쟁 속에 위협적인 긴장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이 팀리더는, "업무팀의 모든 일들은 논리의 설득과 이해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우리라 예상했던 일들이원만한 협조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대내외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업무팀은 특히 정부 부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세종시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회사를 대표해 발로 뛰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격월로 '정부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사내 여러 조직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내외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팀이기에 자 체적인 팀워크의 중요성도 크다. 여섯 명의 팀원 들이 각자 맡은 담당 업무가 있지만 회사의 목소 리를 통합하기 위해 서로 공유할 부분이 많기 때 문이다. 그래서 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끼리 서로 협조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선배와 후배 팀원이 서로 업무적으로 묶 이다 보니 자연스레 소통할 요소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업무팀 내 소통의 방점을 찍는 것이 있다 면 바로 '팀점(팀 전원이 함께하는 점심식사)'이다.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팀점에 한 가지 아이 디어를 더했습니다 두 사람씩의 팀원이 일대일 로 점심을 함께하는 것이죠. 전 팀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완적으로 일대일 팀점도 시행하면서 저마다의 생각을 폭넓게 공 유하게 됐어요. 서로서로 소통하면 팀 전체가 소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각종 서류와 정보자료로 넘 칠 것 같은 사무실이지만 "공유하고 있는 문서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책임담당제를 통해 사무공간을 관리한 결과 지난해 실시된 '클린 오 피스'에서 최우수상을 탔다"고 한다. 단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팀이다

"2014년은 우리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 해 다시 한 번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 다. 업무팀은 우리회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서 뛰면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 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팀이 회 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업무팀 팀원들. 최고 의 경쟁력을 갖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 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오늘도 늦도록 불 밝히 고 있는 사람들이다. 🐇

#### MINI INTERVIEW



#### 업무팀의 강점

맡은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우수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관한 커뮤니케 이션 창구로서 대내외 이해관계자 사이에 오가는 과제를 조율하고 정보를 분석해 최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 2014년의 다짐

지금까지 회사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오며 쌓은 업무팀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 후배의 열정과 패기를 조화시켜 뛰어난 성과로 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팀



이 춘 배 팀리더



**백철웅** 사우





**백 종 훈** 사우



김 낙 중 사우

**변 지 은** 사우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이 선 화** 사우





## 최고 경쟁력으로 지속성장 다짐한 '윤활기유 콘퍼런스'

윤활부문이 지난 11월 22일에 일본에서 '2013 윤활기유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동경 그랜드프린스호텔 타카나와에서 열린 이 콘퍼런스는 2008년 개최 이래 5회째를 맞은 뜻 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콘퍼런스는 참석자들에게 윤활기유 시장정 보와 최신 기술정보는 물론 관련 시장경제의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을 제공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고객 들은 현장에서 공유한 내용이 회사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연단에 나선 강기태 상무는 인사말을 통해 "윤활유 제품 규격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자리의 고객 여러분이 에쓰-오일의 진정한 자산"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 원으로 함께 지속성장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 업무현장

# 열정 넘치는 따끈한 소식 전합니다



## 창의적인 업무 접근 꾀하는 '아이데이션 세션'



고객지원부문이 '아이데이션 세션(Ideation Session)'을 개최해 직원들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데이 션 세션은 창의적인 발상을 업무와 연계해 실현하고자 하는 고객지원부문의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둘째 · 넷째 주 목요일 저녁에 부문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관심 있는 주제를 내세워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아이데이션 세션이 2012년 4월에 착수된 데 이어, 그 해 9월부터 진행된 2단계 세션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부문은 주요 전략적 이슈 중심으로 진행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 상호이해를 넓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 출해 업무에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이데이션 세션의 토의 주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탐구하면서 회사의 '수익성 있는 지속성장' 달성에 기여하는 통찰력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 습니다.





2014년 목표달성을 모색한 '생산지원부문 워크숍' 11월 30일 생산지원부문 워크숍이 동부산관광호텔(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서 열렸습니다. 임직원 7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내년 부서운영의 밑그림을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서별 발표를 통해 2014년 운영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문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생', '조직문화 발전', '주인의식 고취 '를 주제로 토론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자율적으로 금연하고자하는 직원 각자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는 뜻에서 금연 서약식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습니다.





**이동화** -해외마케팅전략팀

정유산업의 최신 정보를 공유한 '온사이트 교육' 해외 정유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현장 교육(On-site Training)이 12월 6~7일 강남교육장(서울시 강남구 삼성동)과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해외영업본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국내영업본부, 운영총괄, 전략기획본부, 재무본부, 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 등 직원을 포함해 3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틀 동안 총 11개 세션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은 세계 정유시장과 주요 산유국을 위시한 시장 전망, 중국·일본·인도·호주와 아시아의 시장 정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요소 등을 두루 다뤘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정유산업의 최신 정보를 습득한 데 이어 조별 토의로 정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강화했습니다.



열띤 참여와 호응으로 성료된 '에쓰-오일 바디챜린지'



임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제2회 에쓰-오일 바디챌린지'가 12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참여자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뱃살 빼고 S라인', '나도 몸쨍' 등 타이틀을 내걸고 각각 60일과 70일의 도전으로 추진된 이벤트는 계단오르기와 같은 즐거운 대회가 더해져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체중과 허리둘레 감소 수준, 이벤트 출석률로 가린 수상자는 총 11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주유상품권을 비롯해 건강식품 기프트카드, 가정용 사이클 등 푸짐한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 포근한 겨울나기 '햇살나눔'이 돕겠습니다

**12**DECEMBER

평년 기온을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친 12월, 옷깃을 여미고 온정이 필요한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닌 햇살나눔 봉사단. 올 겨울이 그리 춥지만 않은 것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하는 봉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01 분해1부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을 찾은 봉사단은 어르신과 함께 경주의 임실치즈학교에서 치즈만들기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02 계전부

봉사단은 우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김장 담그기을 하고, 1년간 활동상을 담은 사진감상과 봉사활동 평가회를 가졌다.

(03) 감사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봉사단은 삼계탕 나눔 행사와 생신잔치를 진행했다.

04 진주지사

장애인 복지시설 늘사랑을 찾은 봉사단은 시설 장애인과 함께 간식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 분해2부

봉사단은 장애인 복지시설 푸른울타리를 찾아 지적장애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성탄절 트리 장식을 함께했다.





#### 경상지역본부 및 대구지사 봉사단은 노인전문요양원 여래원을 방문해 시설 내 청소 등 노력봉사활동을 지원했다.

연료연구·촉매연구팀

울산광역푸드뱅크를 찾은 봉사단은 관내 독거 어르신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진행했다.

# 자금계획팀

봉사단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을 찾아 식당의 배식 및 설거지 도우미 활동을 펼쳤다.

#### 군산저유소

봉사단은 노인복지시설 사랑의집을 방문하고 노력봉사활동과 함께 난방비를 기부했다.



-OIL 햇살 나눔 봉사활동 군산저유소 사회 봉사단

#### 분해3부

(10

해밀어린이집을 찾은 봉사단은 성탄 기념 케이크와 장식품 만들기로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6



24

수송저유팀(배차센터)

구세문다문화센터를 방문한 봉사단은 외국인 근로자 및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 활동을 펼쳤다.





# 두루미의 따뜻한 겨울나기 **함께해요**

## 천연기념물지킴이 봉사단 철원 DMZ 두루미 보호활동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12월의 마지막 토요일, 회사 앞으로 80여 명의 인원이 모였다. 추위에 볼이 발그레한 아이들이 눈에 띄는 이들은 사우들과 그가족. 주말을 맞아 강원도 철원군 DMZ(비무장지대) 인근 두루미, 기러기 등 철새가 많이 찾는 곳에서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 천연기념물지킴이 봉사단이 우리 자연을 지킵니다

우리회사는 2007년부터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 보호협약을 맺고 수달, 장수하늘소, 두루미 등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보존과 먹이주기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철원 DMZ 일대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철원군은 강원도 총면적의 20%에 이르는 광대한 철원평야와 민간인 통제지역, DMZ 등 풍부한 먹이원과 안전한 서식지 및 잠자리로 매년 야생조류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두루미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2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보호동물로 전체 두루미 15종 중 7종 700여 마리가 매년 겨울 철원군을 찾는다.

사내 직원과 가족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 회 회원들과 함께 두루미의 문화 · 생태적 가치를 배우고 철새도래지 탐사, 먹이주기 활동, 두루미전시관 관람, DMZ 내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견학 등 환경 보호와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철원에서 만난 두루미 이야기

· 100 · 100

'두루루' 운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두루미는 성체가 되면 140cm 정도 되는 큰 키에 눈처럼 하얀 깃털을 가진다. 한국에는 11월경에 도래하기 시작하여 겨울을 나고 이듬해 2월 중순부터 북상하기 시작한다.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3~5마리 정도의 두루미 가족이 논에서 볍씨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인가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찾지 않는 DMZ 내 논밭은 두루미가 서식하기 좋은 곳이다. 먹이주기 활동은 두루미가 없는 가운데서 조용히 펼쳐진다. 먼저 두루미가 자주 찾는 서식지 인근 논에 옥수수, 볍씨, 콩등 모이를 흩뿌려준다. 3~4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기척이 사라지면 다가와 모이를 먹기 시작한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궂은 날씨에도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손은 분주했다. 곳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환경과 자연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교육이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꼭 함께할 것을 희망하며 자연사랑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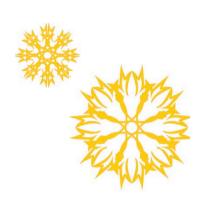
# 햇살처럼 따뜻한 이웃사랑



# 겨울이 더욱 포근해집니다

#### 햇살나눔 소식

올 겨울 햇살니눔 본사단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온정을 더했다. 이웃돕기 기부 및 물품 전달 등을 통해 뜻깊은 사랑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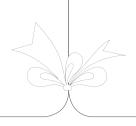
####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우리회사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1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식은 지난 12월 30일 사랑의 열 매 회관(서울시 중구 정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장애청소년 학습 지원, 소외계층 난방유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물품 전달

매서운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회사가 5천만 원 상당의 방한물품을 쾌척했습니다. 12월 4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에서 우리회사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을 위해 두툼한 이불을 내놓았습니다. 이 물품은 일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천500세대에전달됐습니다.



## 사랑의 연탄으로 마음까지 따끈따끈

**글·사진** 심문보(윤활기유국내마케팅팀)

윤활부문은 2011년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11월 30일에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윤활부문 및 윤활기유 국 내6개 고객사(만장산업·범우화학·한국하우톤·에쓰-오일토탈윤활유·에스라인상사·이탈에너지) 직원과 가족 51명이 모여 8가구에 각각 200 장씩, 총 1천6백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주말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활부문 사우들 대부분이 참가한 이번 연탄배달 봉사활동에서 봉사단은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요즘은 거의 구경하기 힘든 연탄의 무게가 무척이나 무겁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멋도 모르고 열심히 연탄을 쌓던 일부 초보 봉사 단원들은 주말 동안 허리통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소득은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업무자리가 아닌 곳에서 서로 땀

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참가한 봉 사단원들과 고객들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더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바라면서 조용하지만 열정적이었던 이날의 봉 사활동을 마쳤다





#### 문화예술&나눔캠페인 모금액 기부

문화나눔으로 쌓인 소중한 돈이 지역사회 영유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우리회사는 그동안 본사 사옥이 있는 마포를 거점으로 문화예술&나눔캠페인 무료공연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공연 현장에서 주먹밥을 팔아 기부금을 모으는 한편, 사옥 앞 '구도일 카페' 음수대에 기부함을 설치해 작은 정성을 모아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먹밥 판매로 총 254만여 원이 쌓였고, 구도일 카페 음수대를 통해 모인 130만여 원까지 합해 총 384만여 원의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인 '시소와그네'의 마포센터에 전달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가정 등에 지원물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울산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온도탑에 기부

우리회사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14 나눔캠페인 온도탑' 제1호 기부처로서 총 2억8천96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12월 2일 온도탑 제막식에서 우리회사는 저소득계층 난방유 지원금 1억 원, 사회복지단체및 시설 18곳에 1억 원, 김장나누기 5천만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3천600만원 등을 기부해 온도탑의 수은주를 7.4℃나 올렸습니다.울산 태화로터리에설치된온도탑은이웃사랑성금 목표액의 1%인 3천950만원이추가될때마다 1℃씩올라가며,모금목표액에도달하면 100℃를 나타내게됩니다.







#### 남다른 운영 비결!

가끔 자동차를 몰고 다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봅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고객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이러한 벤치마크를 통해얻은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 다모아주유소에게 고객 · 직원이란?

고객이란 평생 섬길 고마운 은인, 직원이란 소중한 또 다른 가족입니다. 고객과 직원이 있어 다모아주 유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모아주유소가 문을 연 것은 1999년이다. 강일 구 현 대표의 부친이 현재의 공주시 무릉동에 터 를 잡은 뒤 오랫동안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유소 로 사랑을 받아왔다.

"친절을 최대 강점으로 정품정량 원칙을 고수하며 고객을 맞고 있습니다. 한 번 찾은 고객은 인상 깊은 서비스에 십중팔구 다시 찾아옵니다. 적어도 60% 정도가 단골일 정도로 비중이 높지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면서부족한 점은 없는지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고객들은 다모아주유소를 일컬어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봤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그 비결에 대해 강 대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시키는 대로 실현시켰을 뿐"이라고 말한다.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해답은 세차장만 살펴봐도 찾을 수 있다.

고객의 차량이 주유소에 진입하면 먼저 세차장으로 들어간다. 일반적인 주유소라면 주유를 마치고 세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반대이다. 세차장에서는 전담 직원이 차량 전체에 직접 고압세차를 해준다. 먼지와 불순물을 떨어낸 차량은 자동세차시설로 들어가고, 자동차 전용 세제로 더욱 깨끗해져서 밖으로 나온다. 출구에서는 두어명의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체 유리, 사이드미러, 앞뒤 문 안쪽까지 말끔하게 닦아준다. 그야말로 전문 세차에 손색없을 정도이다. 고객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주유를 하고, 나갈 때도 직원들의 우렁찬 인사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객 중에는 종종 "3만 원만 넣으려고 했는데 서비스 덕분에 가득 채우고 가요"라고 말해주기도하는 등 반응이 대단하다.

#### ▲ 고객도 직원도 좋아하는 참 좋은 주유소

지금의 다모아주유소가 운영상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근에 10여 개의 주유소가 치열 하게 경쟁하고 있고, 저마다 최저가 전략을 펼치 고 있어서 날로 수익이 악화되던 와중에 강 대표 는 승부수를 걸었다.

"상대 주유소를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으로는 고 객 창출도 수지타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오히려 적정마진을 지키되 서비스 품질 을 높여 고객 만족을 꾀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 었어요. 주유금액과 주유량 차이라고 해봐야 크 지도 않은데 서비스가 훨씬 좋다면 자연스레 고 객도 좋아하지 않을까 판단했어요."

그 결과 매년마다 우수 주유소를 선정해 시상하는 챔피언스클럽에서 세 차례(2008, 2009, 2013년도)나 수상의 영광을 안는 등, 탁월한 고객 서비스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강대표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친절 마인드로 무장한 직원들 덕택이라고 공을 넘긴다. 강대표는 "직원들이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완벽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충분히 휴식해야 근무능률도 오르고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믿는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일요일은 쉬고 주 6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근무하도록 정례화했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기본만 충실하게 지킨다면 고객의 호응도 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고 객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되어본다면 분명 크 게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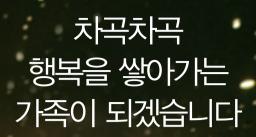


#### 다모아주유소



충남 공주시 신시가지에서 대전·세종시 방향으로 가는 32번 국도에 위치해 있다. 고객 편의를 우선한 구조설계, 철저한 정품정량 전략,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정신으로 인근에서 가장 인기좋은 주유소가 됐다.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809 041-856-8220



품질관리2과 김동춘 사우 가족

101



66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남편, 포근한 미소의 아내, 우애 돈독한 두 아이까지 모처럼 한데 모인 식탁 앞에서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다





김동춘 사우가 가족을 위해 사보 편집실 문을 두드렸다.

광안대교가 보이고 해운대해수욕장이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김동춘 사우 가족은 모처럼만에 맛있는 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처음 이벤트 를 접했을 때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대가 됐다는 아내 문연심 씨. "연말에 바빠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못 가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마련한 이벤트를 보니 더욱 감동이 크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아들 준형이와 딸 가은이도 기분 좋은 듯 짝짝 박수를 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김 사우는 "가족들이 이렇게 좋아해주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통 큰 약속을 한다.

#### 가족과 함께있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 등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 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 평소에는 다소 가부장적인 아빠이자 남편이라던 김 사우이지만 넉살 좋은 웃음, 부드러운 미소로 스테이크도 썰어주고 장난도 치며 인기를 독차지한다.

"가족의 중심은 부모님도 자녀도 아닌 부부중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중심으로 사는 게 현실이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부 부가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인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 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은 무슨 일이든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의 스케줄을 우선 시하는 사람이에요, 엄격한 면도 있지만 속으로는 한 없이 자상한 성격이 죠. 그런 면에서 가족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는 존재지요. 지금처 럼 남편과 욕심 부리지 않고 아이들과 잘 살고 싶어요."

이따금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김 사우. 시간이될 때마다 크고 작은 여행을 계획하며 단꿈을 꾸는 그는 영락없이 '가족 바라기'이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자연스레 같이 있을 시간이 줄어들 텐데, 여행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추억거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공개해보고 사랑을 충전하는 그런 여행 말이죠. 사실 준형이가 요즘 사춘기를 타는 것 같은데, 몰래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준형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요."

#### 자녀는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자란다

김 사우는 아내를 친구 동생의 소개로 만났다. 적극적인 대시로 결혼에 성 공해 행복감을 만끽하던 것도 잠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모세기관지염 때문에 울산에서 부산까지 매일 병원으로 통원했다고 한다.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기형아 검사에서 수치가 높다고 그 위험하다는 양수 검사를 두 번이나 하는 등 마음 졸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부부이다. 그 런 어려움 끝에 한참 자란 두 아이는 부부에게 커다란 보배이다

"아이들이 모두 인사 잘하기로 유명해요. 주변에서는 참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하며 칭찬해주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자 롤모델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의 성격이 모난 곳 없이 지극히 평범한지라 자신감을 불어넣기위해 그때그때 바람 반 기대 반으로 말을 해줍니다. 가령 '우리 준형이는 쿨가이!', '우리 가은이는 외국 가서 살겠네(세상을 넓게 보라는 뜻으로)'라고 말하죠."

자녀는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자라는 것 같다는 부부. 때로는 김박사, 김 검사 등 쑥스럽기 그지없긴 해도 자주 불러주려고 한다. 때때로 아이들이 기대하고 불러주기를 바랄 때도 있다.

"한창 커가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다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서로 지켜야 하는 경계가 있는 듯,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크게 간섭하지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해결하도록 마음 먹은 거죠."

김 사우가 자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먼저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잘 아는 그이기에 자녀는 물론 아내의 건강을 무 엇보다 우선 생각하고 걱정한다. 또 하나는 거짓말로, "부득이 또는 선의 로 거짓말을 했더라도 반드시 언제든 진실을 이야기해주었으면"하는 것 이 그의 바람이다.

#### 우리 가족은 '평범함'이다

우리 가족을 한 마디로 하면 '평범함'으로 말할 수 있다는 김 사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지극히 평범한 것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모토"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가족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것 인데 서로의 일을 핑계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한 번 해보면 어렵 지 않은 것을요."

오랜만에 가족과 즐거운 외식을 함께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낸 김 사우는 "우리 가족처럼 평범한 가족도 참여했는데, 다른 사우 가족들도 용기 내어 이벤트에 참여하면 멋진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모일 자리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공부하느라, 부부는 바쁘게 일하느라 서로 시간내기도 버거워지죠. 이럴 때 짧은 시간이나마 이런 이벤트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만족스러우리라 장담합니다." 💃





- ※ 사우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신청 및 문의 sabo@s-oil.com

노시경 사우의 딸 노신영 양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올해 입학하게 됐다. 딸의 입학을 축하하고 그동안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미래를 응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띄웠다.

# 딸이 꿈꾸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 사랑하는 딸 신영에게

내 딸, 신영이가 벌써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나. 네가 태어나던 가을의 새벽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말이다. 그동안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책상에만 앉아있던 너의 뒷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단다. 그래도 네가 원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아빠는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고 작년에 있었던 일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단다.

아빠는 네가 너무 고맙단다. 딸의 미래를 보면서 계속 부푼 꿈을 꾸게 해주어서 말이야. 꿈이 없는 삶은 너 무 힘들지만 항상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너를 보면서 아빠도 매번 인생의 꿈과 희망을 느끼곤 하지. 힘들 겠지만 너도 고교 3년간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려무나.

항상 쾌활하고 말도 많은 우리 딸이 아빠. 엄마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니 이제 얼굴 보기도 어렵 겠구나. 앞으로 너의 고교 생활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생활이 계속될 거야. 잠 지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책을 들여다봐야 할지도 몰라. 그럴 때는 다시 너의 미래를 꿈꾸면서 심호흡을 한번씩 하려무나, 그 때마다 아빠가 너의 곁을 힘껏 지켜줄게, 이제 힘든 고등학생의 생활이 시작되지만 공 부와 학교활동에 몰입하며 꿈을 키우는 학생이 되기를 아빠가 끝까지 응원할거야.

노신영 파이팅! 🥞



무오년 새해다. 청마가 무리를 지어 너른 초원을 뛰어가듯이 벗과 함께 예쁜 오솔길이나 호젓한 숲길을 자유롭게 걷는 일은 한 해를 일궈가는 또 다른 동반자임에 틀림없다. 문득문득 길을 대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날 때마다 그 가치에 대해 잠시 고민해본다. 인간과 문명, 소통을 상징하는 길이 어쩌면 다른 생명체에게 커다란 해를 주진 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특히 여름철은 벌레들이 성하여 저도 모르게 밟아 죽이는 일이 잦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살생계(殺生戒)를 범하지 않도록 '헛되이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에 매진하라'는 뜻에서 하안거(夏安居)에 드는지도 모른다.

# 걸을수록 사랑과 우정 깊어지는 명품 오솔길

충주 종댕이길



- 1. 심항산 정상은 충주의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다.
- 2. 건강한 숲과 시원한 호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종댕이길은 중간에 쉼터와 정자, 전망대 가 있어 가족단위로 걷기에 적 합하다.
- 서슬 퍼런 결사항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충주의 지정학적 요소와 충주인들의 투철한 자주민족의식, 애항정신 때문이다.사진은 '대몽항쟁전승기념탑' 전경이다.







마즈막재 주차장-종댕이오솔길 -생태연못-제1조망대-제2조망대-현수교-심항산 정상-숲해설안내 소-마즈막재 주차장(총 8.3㎞)



충북 충주에는 호수를 곁에 두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명품길이 있다. 계명산 끝자락인 심항산 둘 레를 지나 충주댐 물홍보관을 잇는 11.5㎞의 '종 댕이길'이다. 그러나 상종마을에서 중주댐까지 약 4㎞는 아직 보행자 전용 길이 공사 중이어서 종민동 마즈막재에서 출발하여 심항산과 호수를 걷는 숲길, 행정구역상으로는 '심항산 해맞이 도 시숲'(충주시 종민동 산71)을 걸어 되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길을 잡는다.

계명산(775m)과 남산(666m) 사이에 있는 마즈 막재는 안림·종민·목설동의 경계다. 삼국시대부터 충주에서 청풍·단양·죽령을 넘나들거나 송계·미륵리·하늘재를 넘어 영남에 이르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단양·청풍·수산과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지방의 죄수를 충주감영으로 이송할 때이 고개를 넘었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고개라 해서 마지막재가 되었다는 애처로운 이야기가 깃든 곳이다.

마즈막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야트막한 언덕위에 있는 '대몽항쟁전승기념탑'을 찾는다. 충주는 1231년부터 30여 년 동안 충주성 · 충주산성 · 금당협 · 다인철소 · 대원령 · 월악산성 · 박달재 등에서 몽고와 맞서 싸운 곳으로 총 9건의 항전기록이 있다. 그중 5차 침입(1253, 고종 40)때 충주성 승전은 전사에 길이 남는다. 방호별감김윤후 지휘 아래 군관민은 물론 승려 · 노비까지 몽고군의 대공세에 맞선 공방전이 석달째 접

어들면서 성안 식량이 바닥났을 때, 김윤후는 "힘을 다해 적을 막는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벼슬을 내리겠소!"라고 외쳤다. 성안 사람들은 모두가 사력을 다해 극렬히 저항한 결과, 몽고군은 이내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싸움이 끝나자 약속대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관직을 내렸으며, 충주는 국원경(國原京)으로 승격된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충주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760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치렀던 고귀한희생을 기억하고, 나라와 향토를 사랑했던 위대한 정신을 되새기며 도로변에 마련한 산책로를따라 내려간다.

'종댕이길'이란 이름은 1983년 충주호로 수몰되기 전, 지금의 심항산 아래 있던 종댕이마을에서 유래했다. 원래 상종과 하종마을에 집성촌을 이루었던 전씨(全氏) 사당을 종당(宗堂)이라 했는데, 예서 종댕이가 비롯되었다.

나무 데크길을 20여분 걸은 뒤 종댕이오솔길 푯말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은 전날 눈이 오신 탓에 미끄러웠지만, 사방 모두 흰옷으로 갈아입은 풍광에 상큼함을 더한다. 계단은 낙엽 푹신한 오솔길과 깎아지른 벼릇길로 이어지고, 마즈막재에서 내려다보던 호수를 만나 인사를 나눈 이곳은 지네가 많았다. 수북한 돌들이 지네들 천국이라 지금도 밤이면 지네들이 달빛에 수군거린다 해서 '지네들의 돌집'이라 부른단다.

#### 걷고 싶은 길

작은 팔각 정자를 거쳐 생태연못에 닿았다. 임도 처럼 널찍한 흙길이 정겨운지 매서운 겨울바람 조차 잊어버린다. 오래지 않은 벚나무가 도열해 있다. 그렇다. 길과 함께 가로수 또한 길손과 함 께하는 도반인 셈. 기원전 이집트는 무화과나무 를, 그리스에서는 방울나무를 길가에 심었고, 고 대 중동지방은 아몬드나무를 심어서 길손의 헛 헛한 배를 달래줬다. 우리는 예전부터 5리쯤 되 는 거리에 오리나무를, 10리나 20리에는 시무나 무를 심어 이정표 역할을 했다. 오리와 십리나무 들이 점차 우리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근대화에 따라 신작로가 생기면서 주로 미루나무가 그 자 리를 차지하고부터다. 어렸을 적 김포 외갓집을 갈 때 버스는 언제나 꽁무니에 흙먼지를 달고 질 주했고, 묵묵히 늘어선 미루나무가 이 흙먼지를 몽땅 뒤집어쓰던 모습이 내가 본 가로수의 아련

한 첫 기억이기 때문이다.

평평한 길인가 싶으면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이어져 마치 트레킹을 떠난 기분이다. 길은 산을 감아 구불구불 돌아가고, 호수는 산을 안고 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지니 마음 또한 편안하다. 경사 길에는 나무계단을 놓았고 벼릇길 가장자리는 로프를 설치해 안전을 도모했다. 숲의 다양한 식생과 함께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의 초겨울 경관을 즐기다보니 벌써 제1조망대다. 1985년 충주댐 완공으로 만들어진 충주호(忠州湖)는 면적 67.5km², 평균수심 97.5m이며 27억 5천 톤의 저수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웃한 제천시와는 명칭 때문에 지금도 불편하다. 제천시는 '수몰지역이 가장 많았음에도 이름을 정할때 모두 무시됐다'면서 '청풍호(淸風湖)'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을 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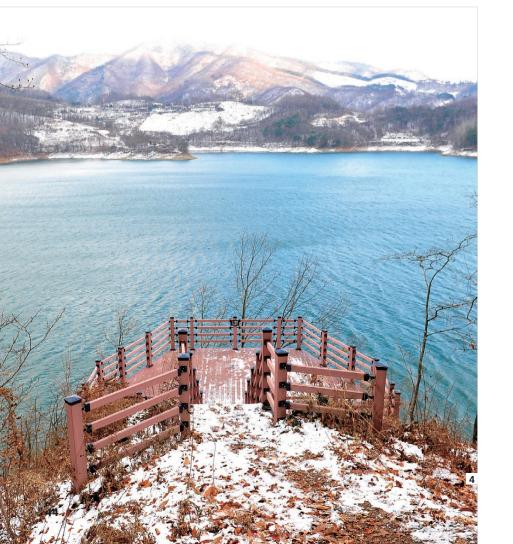


• 작은 나무에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 것이며
커다란 나무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인한 힘과
우아한 자태를 잊지 말 것이며
잘려진 나무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봉사하는 마음과
말없이 행하는 실천정신을 잊지 말 것이며
나무의 일생에서
인생의 참신한 덕망을 쌓으며
허황된 욕망과 꿈은 잊고 살아보자
- '나무의 가르침' 남해인



- 5. 한번 넘을 때마다 수명이 한 달씩 더 늘어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가 전해오는 종댕이고개 앞에 우 뚝 선 장승의 모습.
- 6. 하종마을을 이어주는 출렁다리.







- 7. 평평한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져 마치 트래킹하는 기분이다
- 8. 낙엽 수북하게 깔린 길은 산을 감아 구불구불 돌아가고, 호수 는 산을 안고 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종맹이길은 마음 편 안한 명품길이다.
- 9. 소원바위는 사람과 건강. 합격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다해서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다.

산이 머무른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갑오년 한 해를 꿈꾸어본다.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줄기두 개가 1m높이에서 서로 맞붙어 둥그런 공간을 만든 '모자나무'는 호수를 가르는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어머니와 태아의 천륜을 상징하는 듯하다. 쉼터를 지나는 길에는 작은 돌을 쌓아 만든 이색적인 돌탑들이 줄지어 섰다. 누구의 솜씨일까. 무슨 원을 세우려이처럼 많은 탑들을 정성들여 담아냈을까. 제2전망대에서 보는 조망은 한편의 시다. 잔잔한 수면은 이미 담아낸 하늘과 함께 등곡산과 월형산이 얌전하게 앉아 있고, 오른쪽 뒤로 월약영봉 마루금이 창공에 잇따라 펼쳐진다. 이어서윗부분이 뾰족하고 하단이 넓게 퍼진 집채만 한소원바위는 사랑과 건강, 합격 같은 소망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빛을 다한 단풍이 초겨울 턱밑 바람에 춤을 추며 굴러가 닿은 곳에 하종마을로 나가는 현수교가 있다. 일명 출렁다리인데, 다리를 출렁이며 건 났다가 팔각 정자에서 되돌아 나오며 "우리나라 현수교는 지역을 막론하고 왜 대부분 붉은 색일까" 라는 의문을 지닌 채 가파른 고개를 넘어 심항산 정상으로 길을 잡는다. 거리는 1,2km, 오르

찾는다고.

는 길이 다소 팍팍하나 물푸레나무를 비롯 산벚 나무 · 생강나무 · 굴참나무 · 산버드나무 · 산초 나무 · 개옻나무 · 가죽나무가 자생한 숲은 아주 건강했다. 또 나무와 숲에 관한 시가 곳곳에 있어 이를 읽고 가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숲은 크게 자원 생산적 · 환경 생태적 · 휴양 문화적 기능으로 구분되고, 그 역할과 비중이 점점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는 샤토브리앙의 말을 빌지않아도 환경파괴는 문명 발달과 비례해서 급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울수록 숲의 환경적 기능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심항산 정상에서 조망하는 풍광은 말 그대로 환상이다. 호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줄줄이 산마루가 이어진다. 충주의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그리고 풍성한 전나무 숲길에 들어서서 숲해설안내소를 지나처음 출발한 마즈막재로 길을 되돌린다. 😘

호로 표기함과 청풍호 개명을 위한 운동까지 벌였다. 이에 충주시는 '인공호수의 이름은 댐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을 가두는 '댐'은 땅이 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에서 유래됐다. 로테르담 · 암스테르담처럼 도시명에 유난히 '담'이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하는 면에서는일리가 있지만, 자연생태계와 인간 삶에 미치는폐해 또한 만만치 않아 이미 선진국에서는 건설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며 기존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댐에서 얻는 이익보다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간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늦게나마 깨우쳤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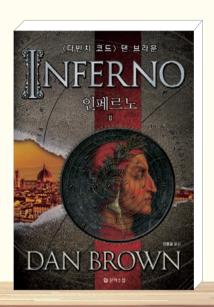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고 가는 길가에 정성들여 쌓은 돌탑을 지나자 야트막한 고개 앞에 장승이 버티고 서있다. 바로 종댕이고개다. 한번 넘을 때마다 수명이 한 달씩 더 늘어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터라 재미삼아 한두 번 더 넘나들다내려가니 팔각정. 호수 저편은 월악나루를 거쳐단양을 향하는 물길이 열려있고, 운치 있는 오솔길은 차분하게 이쪽을 잇고 있다. 잠시 나무벤치에 앉아 자신의 걸음걸이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걸음새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재면서 사우왕

# Inferno

# 인류의 미래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댄 브라운 〈인페르노〉



《다빈치 코드》、《로스트 심벌》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댄 브라운의 신작 〈인페르노〉가 출간되었다. 3년 동안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인페르노〉는 11개국에서 동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 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간결한 문체, 의문의 기호를 풀어가는 긴 박한 구성 등 작가 특유의 스토리가 많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소재는 단테의 〈신곡〉이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담은 〈신곡〉에는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다양한 인간상을 대표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 단테는 구원을 열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제시한다. 〈인페르노〉에서 단테의 〈신곡〉은 천재 과학자 버트런드 조브리스트의 비뚤어진 욕망을 자극하는 계기이자 해결의 실마리이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의 헛된 꿈이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간다.

이번 소설에서도 사건의 해결은 로버트 랭던이 맡았다.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기호학자인 랭던은 천재의사 시에나 브룩스와 함께의문의 집단에 쫓기며 조브리스트가 남긴 기호의 의미를 해석해

나간다. 세계보건기구(WHO), 비밀단체 컨소시엄 등이 연루된 복 잡한 구도 속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 터키의 이스탄불 을 무대로 인류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단 브라운은 〈인페르노〉를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인간의 의지에 의문을 던진다. 인류가 꿈꾸는 무병장수의 미래는 과연 천국인가 지옥인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인류는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멜서스의 인구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량이 늘어나 틀린 것이 되었지만, 인구 증가는 각종 분쟁과 환경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작가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소설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천재 과학자 조브리스트가 인류에게 숙제를 남긴 셈이다. 그러나 소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적어도 인류는 멸망에 이르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랭던은 단테의 이 시가 지옥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만큼이나, 아무리 가혹한 시련이 닥쳐도 끝내 일어서는 인간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

# 〈인페르노〉 이렇게 읽었습니다



#### 오혜린(경영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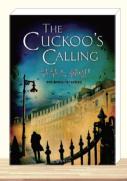
고전과 예술을 넘나드는 방대한 지식과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 더 없이 매력적인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그려내는 솜씨까지, 이 책은 독 자가 반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댄 브라운 특유의 반전 코 드와 수많은 상징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섹시한 브레인을 가진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이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설정은 열 혈 독자들에 대한 덤이다. 올 겨울, 소설을 관통하는 단테의 「신곡」 과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이탈리아를 만나고 싶다면 한 번쯤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 이미수(노사협력팀)

이 책의 사건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터키의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하는데, 배경묘사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 같은 현실감을 준다. 각 도시를 상상하며 읽다보면 주인공이 숨 었던 장소, 감탄했던 역사적 장소 등을 실제로 꼭 가보고 싶은 충동 이 일 것이다. 상당히 흡입력이 있는 이 책은 오가는 출퇴근길에도 쉽게 읽히는 책이다.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는 물론 멋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체험도 할 수 있는 책이니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쿠쿠스 콜링

#### 조앤 K, 롤링 / 김선형 번역 / 문학수첩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K, 롤링의 탐정 스릴러로서, 의문의 죽 음을 맞은 슈퍼모델과 진실을 밝혀내려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동안의 성공을 등에 업지 않고 원숙미와 세련된 완성도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 디어 라이프

#### 앨리스 먼로 / 정연희 번역 / 문학동네

정밀하고 절제된 언어로 삶의 미묘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앨리스 먼로 (2013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단편집이다. 작가가 어린 시절을 회 고한 〈디어 라이프〉를 포함해 언니의 익사사고 이후 그 기억에 사로잡 혀 살아가는 동생을 그린 〈자갈〉, 고향에 있는 약혼녀에게서 도망치려 고 기차에서 뛰어내린 군인의 이야기인 〈기차〉 등 총 14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 본 도서는 지난 12월 1일~31일 본사 자료실에서 가장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친구와 원수의 두 얼굴





우리 사회에서 회식과 함께 이어지는 술자리는 빠질 수 없는 문화인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면 신체 · 정신적인 복구가 어렵게 된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음주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담배 중독

쇼핑 중독

카페인 중독 게임 중독

탄수회물 중독

일중독

인스턴트 중독

취미 중독

관계 중독



알코올 중독은 더디게, 그러나 점점 심각하게 발전한다. 처음에는 병인지 아닌지 본인도 가족도 모르다가 신체·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술에 대해되가 변화되는 내성이 생겨나게 된다.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점은 환자가 마시는 술의 양이나 술 마신 후의 행동을 예상할 수 없고 조절할 수도 없다는 점, 한 번 변화된 뇌는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간이나 소화기, 혹은 말초신경에 손상이 가는데 나중에는 뇌조직이 손상되어 유발된 정신과적 장애들이 나타난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 인터넷 중독자와 동일한 뇌 변화를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ㆍ정서적ㆍ행동상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01. 알코올 중독 피하는 적절한 음주량은?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음주에 해당하는 잔수가 각술의 종류에 맞는 술잔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소주는 소주잔으로 1잔, 맥주는 맥주잔으로 1잔, 양주는 양주잔으로 1잔씩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소주를 맥주잔으로 1잔 마셨다면 당연히 과음한 결과가 된다. 주중 음주횟수도 중요한데, 아무리 적당히 마신다고 하더라도 1주일 내내 술을 마신다면 결국은 알코올 섭취량이 위험 정도를 넘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음주횟수는 아무리술자리가 많아도 1주일에 3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02. 술자리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즐겨보자

- 술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거나 잔을 돌리지 않는다.
-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술 마시지 않는다.
- 첫 잔은 오래오래, 다음 잔도 천천히 마신다.
- 자기 주량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 약, 커피, 담배 등과 함께 마시지 않는다.
- 음주량은 가능한 한 각 주종별 표준 잔으로 1~2잔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 술 마시기 전에 음식을 먹어 두고, 안주를 충분히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
- 술 마시는 사이사이에 물이나 다른 음료(탄산음료 제외)를 마신다.
- 음주에 의한 신체적 ·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면 의사와 상담한다. 🐇



## '알코올 중독' 이것이 궁금하다

글을 많이 마시면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술을 적게 마시더라도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 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효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 한 번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평생 술을 마시면 안된다던데?

알코올 중독은 '술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가' 또는 '술이 없어도 견디는가'에 따라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으로 구분된다. 알코올 의존은 술을 다시 마시면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량을 회복하게 되므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알코올 남용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의존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주를 시작할 수 있지만, 다시 심리 의존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적정음주를 지켜야 한다.

여자가 더 쉽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데?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체액이 적고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가 쉽지 않다. 또한 정서적인 도피처 로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한 중독 상태가 될 수 있다.

음주 전 숙취해소제를 미리 마시는 건 어떨까?

숙취해소제는 다음날 술을 일찍 깨게 하거나 숙취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미리 복용한다고 해서 술이 덜 취 하거나 숙취 증상을 완화시키지는 않는다.

물 술 끊는 약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술을 직접적으로 끊게 해주는 약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단주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꼭 전 문가 상담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잘못 복용하면 합병 증이 올 수 있고, 정신과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 이다.

**폭탄주를 마시면 왜 금방 취할까?** 

일반적으로 두 술을 섞으면 2잔을 마시는 꼴이므로 알코 올 섭취량이 증가하고, 맥주 안의 탄산이 알코올 흡수율을 증가시키므로 금방 취할 가능성이 높다.



#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 주유상품권

황승만 윤활유1과

**김가현** 석유화학운영팀

**문원덕** 정유3과

**김종주** 수소3과

### USB저장장치

정영길 탈황1과

정승은 Aromatics생산1과정맹락 사우 가족

**정종신** 수소3과 **공태호** PX생산2과





#### 〈주요소식〉 가족 산행대회

교대근무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사진으로나마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기섭 탈황1과) 가족이 산행하는 모습에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여진수 자재관리과)



#### 〈햇살나눔〉

봉사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신영**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 〈두런두런 수다방〉 사우가 전하는 토막 이야기

사우가 전하는 여러 뉴스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임태순** 세무팀)



#### 〈두런두런 수다방〉 사우 자전거 국토종주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회사 밖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박수목 예방정비1과)

우리나라를 자전거로 종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최진욱 수소3과)



#### 〈걷고 싶은 길〉 영광 굴비생태탐방로

애인과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기사였습니다. (윤홍식 윤활운영팀) 건거나 등산하는 것을 좋아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명희 촉매연구팀 류희열 사우 부인)



#### 〈열린 서재〉 부산을 아시나요

서울토박이인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이사온 부산!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종욱 검사2과)



#### 〈경영전략사전〉 위기에 빛을 발하는 고신뢰조직

회사생활에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정보와 관점을 얻 었습니다. (조성환 올레핀시업개발팀)



#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